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6년 9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1.(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9. 7. (목)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담당과장	이호현 과장(044-203-4020)	담 당 자	임미정 사무관 (402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개최

–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화주애로 신속한 해소에 총력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8.31) 이후 주요 화주(수출기업), 수출물류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신속한 해결**과 앞으로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1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애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 (일시·장소) 9.11(일) 14:00～15:2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산업부(주형환 장관), 중기청, 수출지원기관(코트라·중진공), 주요 수출기업(기계·타이어·제지·석화 등), 수출물류기업, 무역협회(화주협의회), 중기중앙회 등
- (주요내용)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 물류부문 애로해소 방안

○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9.7)에서 발표한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진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 법원압류중지명령(stay order) 발효 예정인 6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 후 한진해운 지원 하에 화주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 어제(9.10) 미국법원이 **압류금지조치**(Stay Order)**를 승인**하면서 **대기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시작**했다.

* 한진 그리스호 美 롱비치항에 하역작업 개시(한국시간 9.11일 00시)

○ 이제는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주력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히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8.31)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비상대응반을 즉시 출범시켜 관계부처, 유관기관, 해외공관(상무관) 등과 애로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특히 수렴된 애로들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제 화주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애로요인 예시**
(1) 내 화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다
(2) 한진해운 해외지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3)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4)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운송비용 상승
(5) 신선식품 등은 폐기 우려 등

□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루트 등을 찾는 과정에서 코트라(KOTRA)·**무역협회 등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현지에서 긴밀하게 힘을 합쳐 지원**함과 동시에

○ 이번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위·중기청 등이 제공하는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1:1 **밀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 (Stay Order **발효 전**) 압류중지 신청 및 논의상황 등 실시간 정보제공, **하역 후 추가이동 수단 사전섭외 지원** 등 (**발효 후**) 신속한 환적, 통관 등을 위한 제반 절차 지원

□ 컨테이너선 운송 비중이 높아 피해우려가 컸던 **가전·기계·타이어·제지** 업계는 **업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수출물류 애로요인을 설명**하고 **비상대응반**이 애로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역할 해주기를 촉구했다.**

※ 업종별 애로요인
(가전)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용 납품 차질 우려
(타이어) 9월까지 겨울용 타이어 납품 필요
(제지) 항공 등 여타 운송수단 이용 어려움

○ 아울러 이번 점검회의에 참석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거점항에 하역한 이후에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당초 계획에 의거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화주 불만이 우려되고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 중소기업청은 한진해운과 계약이된 운송대행 업체(포워딩)업체가 추가 운송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주형환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진해운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한진해운 대주주에게는 책임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정부는 최후의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임미정 사무관(044-203-4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 **일시 및 장소** : ‘16.9.11(일) 14:00~15:20, 무보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 산업부, 중소기업청

○ 수출지원기관

-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중기중앙회

○ 업계

- 두산중공업, 금호타이어, 전주페이어, 롯데케미칼, NH무역, 삼성SDS(삼성전자물류), 람세스물류, 범한판토스, 맥스피드, CJ대한통운, 태웅로직스

□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14:05～14:15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무역정책국장
14:15～15:15	업종별 영향 및 애로사항	
15:15～15:20	산업부 장관 마무리말씀	